

## ○ 202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심사평

먼저 202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에 지원해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공연, 시각 그리고 다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66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를 거쳐 최종 9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 기준으로 제시된 예술적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프로젝트의 예술성과 지역활동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화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안산의 고유성과 지역적 맥락을 짚은 일상 문화 활동부터 예술창작 작품까지의 전 과정을 본 사업의 대상(범위)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모든예술31'의 지원자격이 경기도 관내 단체/개인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예술 분야의 프로젝트가 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상상하였고, 예술적 확장과 창의적 영감을 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산을 토대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을 살폈고, 타 지역 예술인의 경우 안산지역과의 관계성 및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다년 선정팀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더불어 그에 따른 확장성과 안산지역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다섯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난 공력을 토대로 구축된 지역, 장소, 시민과 연계하고자 하는 예술적 논리와 개별성이 드러나는 유의미한 제안도 있었으나, 안산지역에 대한 탐색 논리가 부재한 단순 일회성 공연이나 체험·교육형 제안에 그치는 프로젝트는 제외하였습니다.

여섯째, 실제 안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안산 토박이라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공연예술단체, 인근 예술대학교 출신의 청년 예술가들, 재단 내 타 사업에 참여한 시각예술 작가까지 매우 폭넓은 지원 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더욱 다양해질 예술가의 조

합과 조화가 기대되었습니다.

또, 안산을 해석하는 층위가 매우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라는 표상적인 의미를 넘어 성별과 세대의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안산,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안산 등 각자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래 코로나의 여파로 힘든 예술 활동의 환경을 알기에, 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감액 없이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체/개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본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해도 예술적 역량이 결코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단체에 축하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단체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도움이 되고, 안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202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의위원 박정호, 이미화, 이초영